

재일조선인 문학비평의 민족문화적 의미*

- 조총련 문학비평의 특징과 이중 언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상갑(한림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이중 언어의 질곡, 조선어에 대한 인식 |
| 2. 광복 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전개 양상 | 5. 결어, 조총련 문학비평의 민족문화적 위치 |
| 3. 조총련 문학비평의 원점, 김일성 주체사상 | |

1. 머리말

재일한인¹⁾의 이주 역사는 1910년경부터 시작된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수많은 농민들이 급격히 몰락해가는 농촌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도항(渡航)하게 되는데, 이후 그 수가 점증한다. 특히, 1939년 이후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탄광 노동자 등으로 강제 징용당하여 일본 각지로 보내지는 노동자·농민의 수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1945년 광복 직전에 이르면 재일한인의 수는 유학생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079-AS0113).

1) 재일한인 사회는 이른바 북송사업(1959.12~1984) 이후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이하 '민단')계열의 '재일한국인'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조총련') 계열의 '재일조선인'이라는 구분이 생기고, 일본에서는 남과 북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으로 구분한다. 이 글에서는 재일한인으로 통칭하되, 다만 조총련계만을 따로 지칭할 경우 재일조선인으로 칭한다.

을 포함하여 21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유학생을 제외한다면, 재일한인은 대부분 일본의 노동 시장에 흡수되어 토목·광산·부두의 하층 노동자로 전락, 식민지 지배국에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온갖 민족적인 차별과 억압을 감내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재일한인은 대부분 귀국선에 오르고, 1946년 말에 이르러 이들의 귀국은 대체로 끝난다. 하지만 고향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지 못한다. 더욱이 타의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뒤이어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등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돌아갈 곳을 잃게 된 재일한인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남게 된다. 이처럼 일제 강점과 이후의 남북 분단이라는 한민족의 특수한 역사·사회적 배경은 자·타의에 의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한인의 삶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본의 남북 등거리 외교에 따라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1948.10. 이하 ‘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1955.5. 이하 ‘조총련’)로 갈라진 교포사회, 그리고 극심한 민족적 차별 등, 재일한인의 삶 자체는 한반도의 정치·역사적 상황을 예리하게 반영하면서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모두 배척받는 일종의 ‘경계인’²⁾으로서의 삶을 강요받는다.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재일한인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외국인등록법이나 출입국관리령 같은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재일한인을 일본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 1947년 5월 2일에 일본 정부는 재일한인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등록령’(칙령 제207호)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재일한인은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하게 된다. ‘외국인등록령’이 공포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조총련의 전신인 <재일본조선인연맹>(1945.10, 이하 ‘조련’)은 민족교육을 강화한다.

재일한인 문학은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겪는 민족적 차별과 억압의 현실을 꿰뚫히게 그리는 한편,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저항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재일조선인 문학 또한 그러하다. 북한 국적의 조총련 계열 작가들은 그들 자신을 ‘재일조선인’ 작가로 부르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문학은 거의 북한문학에 가깝다. 이들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하 ‘문예

2)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19호, 2001. 12, 64~70쪽.

동)을 결성, ‘조선어³⁾를 사용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예동’ 기관지 『문학예술』을 살펴보면, 조총련 계열의 문학은 특히 평론에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주체문예 이론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문예동’은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창작 지침을 그대로 수용,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리얼리즘을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론으로 정초해간다. 대부분의 평론은 김일성과 조국(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위해 ‘총련애국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일성의 교시, 북한노동당의 노선, 그리고 조직 강령 등이 평론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민단 계열의 재일한인과는 달리, 북한 국적자로서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재일조선인의 신분은 북한의 ‘해외공민’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으로부터 해외공민의 자격을 부여받은 재일조선인은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밀려오는 자본주의 문화의 영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구하는바 사회주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데 따른 갈등 때문이다.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북한의 해외공민이라는 그들의 이중적인 지위가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게다가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다.

민단 계열의 재일한인 작가들은 1, 2세대 가운데서도 일본어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3세대의 경우 오히려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작가들은 어떻게든 조선어를 고수하고자 한다. 조선어를 고수하고자 하는 재일조선인 1세를 형상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을 고수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재일조선인의 원점을 파고드는 작업이자 재일조선인이 자신을 비쳐보는 삶의 거울이라는 주장이 그것을 반증해 준다.⁴⁾ 이념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신세대와 이념을 고수하고자 하는 구세대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재외 한인이 거주하는 어느 곳에서도

3) ‘문예동’ 작가들은 한글을 ‘조선어’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이들 문학의 논의일 경우에만 ‘조선어’라 칭한다.

4) 리방세, 「고향땅을 찾은 어머니의 낫시 눈약에 대하여」, 『불새』 vol. 14, 재일본조선문학 예술가동맹 대판지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에 견인되는 재일조선인에게 언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들이 생산한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2장에서 광복 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전개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조총련 비평의 특징을 북한문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조총련 문학비평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언어 문제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이중 언어에 대한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조총련 비평의 민족문학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2. 광복 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전개 양상

재일조선인에게 조총련은 그들의 삶을 떠받쳐 주는 지주에 다름 아니다. “일본엔 총련이 있고 돌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국이 있다.”⁵⁾는 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조총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한때 그들이 조국으로 생각하는 북한에 다녀올 수가 없었다. 광복 후 20여 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일본 땅을 떠나 다시 일본 땅을 밟아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조국과 고향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었던 그들에게 조총련은 조국에 버금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조총련이 재일조선인에게 그들은 일본에 사는 소수민족의 하나가 아니라 북한의 해외공민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온 탓이겠지만, 북한 체제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이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일 뿐이다. 그래서 미국이 “남조선을 영원히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 등지를 틀고 앉아 있다.”(작자 미상, 「함께 새봄을 맞을 그날을 위하여-남조선에 있는 옛 친우에게 보내는 편지-」 부분)고 말한다. 그만큼 그들이 쓰는 어휘 또한 매우 도발적이고 원색적이다. “미국 놈과 박정희 역도들”(작자 미상, 「함께 새봄을 맞을 그날을 위하여」), “미제의 더러운 개 박정희

5) 김태경, 「바람란리 물란리」, 『문학예술』 제1호, 1960. 1.

군사 강패의 장기 《집권》 책동”(고연의, 또 다시 4월의 항쟁의 거리에서, 『문학예술』 제30호, 1969), “전두환 파쇼 악당”(필자 미상, 「한 해를 보내며」 중에서)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들은 특히 한일협정에 대해서 안으로는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며 밖으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한다. 반면에 그들의 조국 북한은 수령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이상향이며, 광주항쟁도 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의 지도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강변한다.⁶⁾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재일조선인 문학은 이와 같은 조총련계의 현실인식,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의 해외공민이라는 재일조선인의 조국의식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문학이란 민족문학인데 그 문학 활동을 해외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실로 복잡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⁷⁾는 지적처럼, 재일조선인 문학은 남북한과 일본의 정치·사회상황은 물론, 재일조선인의 일본에서의 위상과 사회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개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5년 조국의 해방은 재일조선인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광복 직후 재일조선인은 복잡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직과 단체를 결성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재일본조선건국동맹>(1945.8) 결성을 시작으로, 한 달여 만에 <효고조선인협회> <북해도조선인해방련맹> 등의 단체가 일본 각지에서 속속 조직된다. 이후, 각기 다른 경향성과 계급적 구성을 가진 이들 단체는 그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서 하나의 통일적인 조직체로 통합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조련>이 결성된다. <조련>은 재일조선인의 귀국 실현과 수송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다.⁸⁾ 그러나 그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일본에 계속 체류하게 된 재일조선인의 생활 안정을

6) 리은직, 「광주 시민들의 만세 소리」, 『문학예술』 제56호, 1974. 12.

7) 정호수, 「재일조선인에 의한 문학 활동에 대하여(1)」, 『문학예술』 제65호, 1977. 12. 여기서 그는 광복 후부터 1959년까지의 재일조선인 문학 활동을 1)해방 직후 <조련>의 조직과 그 당시 문학 활동(1945.8~1949.9), 2)민전 시기의 문학 활동(1949.10~1955.4), 3)조총련의 결성과 그 이후의 문학 활동(1955.5~1959)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8) 북한의 귀국 운동과 관련해서는 권은주의 「북한의 재일조선인 귀국 운동에 관한 연구-추진 목적을 중심으로」(서강대 석사논문, 2006)를 참조할 수 있다.

위해 투쟁해나가는 한편, 재일조선인에 대한 교육과 계몽 사업을 벌인다. 잃어버린 ‘민족’을 찾기 위해서는 민족교육과 계몽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 문학은 『조련문화』 『백민』 등의 잡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조련문화』는 당대의 대표적인 잡지로, 여기서 활동한 작가들은 보다 계급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중립적인 입장인 소수의 작가들이나 한국의 입장을 따르는 작가들은 『백민』 『고려문예』 등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을 벌이는데, 대체로 자연주의적 경향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깃뻏힌 ‘조선문학’을 지키고 그것을 대중문화 계몽운동과 결부시켜 ‘조선민족문학’을 재건하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한편, 이 시기에 벌써 일본어로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일본어로 작품을 창작 발표하면서 일본 문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간다. 따라서 광복 직후 재일조선인 문학은 ‘조선문학’ 재건을 지향하는 그룹과 일본 문단에 진출하여 작품 활동을 벌이는 그룹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용 언어가 ‘조선어’ ‘일본어’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민족의식이나 현실인식에서도 적잖은 거리를 드러낸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이하 ‘민전’) 시기와 조총련 결성 이후의 문학 활동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조직 정비와 궤를 같이 하면서 전개된다. 광복 직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 단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결과 ‘민족연합전선’을 표방하는 ‘민전’이 조직된다. 하지만 ‘민전’은 소속 단체들의 이념 노선이 다양하여 통일적인 조직체로서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한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일본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상황을 빌미 삼아 재일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이에 맞서 재일조선인 사회는 보다 강력한 조직을 결성한다. <재일조선문학회> 소속 작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재일조선인문화단체협의회>(1955. 6, ‘문단협’)를 거쳐, 1959년 6월에 결성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이 그것이다. 조총련은 재일조선인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 극좌적인 노선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던 여러 조직들이 조총련 산하에 재정비되어 나가고, 이에 따라 투쟁도 보다 조직화된 것이다. 재일조선인 문학 또한 그러하다. 조총련 결성 이후, ‘문예동’을 중심으로

한 재일조선인 문학은 북한의 문예정책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독립을 위한 문학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1955년 ‘문단협’ 결성 이후 재일조선인의 문학 활동은 북한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재일조선인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삶과 애국운동을 그려내는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국(북한)에 귀국하는 문제를 다룬 작품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발전을 주제로 한 작품, 한일회담을 비판하는 작품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문예동’ 작가들의 문학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재일조선인 문학의 주요한 특성으로 지적된다.

3. 조총련 문학비평의 원점, 김일성 주체사상

조총련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북한의 유일한 해외공민 단체로서, 민족적 주체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김일성 영도 아래 조국을 통일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조총련의 문학비평은 이러한 조총련의 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북한 대덕산을 방문한 뒤 발표한 조총련 대표의 글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렇다! 평범한 병사를 영웅으로 만들게 하는 그 정신의 원천,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그이께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조국이시고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수령이시라는 그 신념에 있다! (중략)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⁹⁾에서 보듯, 조총련 문학비평은 ‘당과 수령,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작품 평가의 주된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학에 대한 비판도 여기서 출발한다. 리은직¹⁰⁾은 『사상계』(7인 저작집)에 실린 「임진강」(유주현) 「꺼삐딴 · 리」(전광용) 「박람회」(박경수) 「닿아지는 살들」

9) 원정희, 「대덕산을 찾아서(방문기)」, 『풍량을 헤치며-총련결성 45돐기념문학작품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6. 10.

10) 리은직, 「분격을 투쟁에로—최근의 남조선 문학 작품을 읽고」, 『문학예술』 제4호, 1962. 10.

(이호철) 「야화」(서기원) 「자수민」(남정현) 등을 예로 들고, 이들 작품은 다만 비참한 현실을 폭로했을 뿐 독자들이 하여금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도 없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참한 사태의 근원은 오로지 미제국주의자의 장점으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것, 따라서 미국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제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밖에 거두지 못한 것은 작가들이 이른바 혁명의 전망에 대해 정확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허준¹¹⁾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증인」(박연희, 1955) 「213호 주택」(김광식, 1956) 「쏘리·킴」(송병수, 1956), 「오발탄」(이범선, 1959) 등을 다루면서, 이들 작품은 한국사회의 저류에서 움직이고 있는 ‘힘의 원천’에 뿌리를 박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하지만, 그러나 조총련 문학비평의 잣대로 비판한다. <증인>에 대한 평가는 특히 그러하다. 증인」의 주인공 ‘장준’이 진정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는 형상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준은, 이 글에서, 먼저 작가가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도 못하고, 투쟁의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거기에서 투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한국문단의 추천제도와 그 병폐를 지적한다. 한국에서는 기성 작가의 추천을 받아야 등단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가부장적인 과벌이 형성되고, 이런 과벌이 새로운 경향과 가능성을 압살해 버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지적한다. 이것 때문에 「증인」은 조직된 역량을 가진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투쟁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연발생적이며 개인적인 저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증인」은 1910년대의 혁명적인 문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전민족적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그 눈점이 흐려져 있다는 비판이다.¹²⁾ 그는 계루도 (송병수) 「부주전상

11) 허준, 「저류를 형성하는 것—남조선의 작품을 읽고(그의 一)」, 『문학예술』 제8호, 1964. 5.

12) 윤학준, 「저항문학의 자세와 수법—남조선의 작품을 읽고 (그의 二)」, 『문학예술』

서(남정현)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풍자와 해학으로 사태를 흐리지 말고, 남한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미제국주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허준의 이러한 시각은 궁극적으로 ‘단순한 반항에서 반미 구국의 문학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하는데,¹³⁾ 그러나 한국 작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균형 있게 평가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보여준다. 즉 한국 작가들이 얼마만큼 대중의 입장에서 서 있는가를 주의 깊게 헤아려 보면서, 동시에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 문학비평은 1960년대 한국의 순수/참여 논쟁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윤학준¹⁴⁾은, “과거나 지금이나 순수문학을 공격한 놈은 당의 문학이다.”는 이형기의 비판에 대해 김우종이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한다. 윤학준이 말하는 ‘당의 문학’은 조선 인민의 절실한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애국적인 문학이다. 즉 문학은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며, 세계 혁명에 이바지하는 투쟁으로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⁵⁾ 이처럼 문학의 전투성을 제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학에서의 서정성과 형상성을 제고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므로, 이 일은 재일조선인 문학이 당의 문예 정책을 일본 실정에 구체화한 조총련의 문예 방침에 철저히 의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작가의 수공업적인 작업 대신에 조직적인 집단 운동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량남인¹⁶⁾은 도식주의를 크게 경계한다. 그에 따르면, 도식주의는 작가가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 생활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창작의 충동을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난다. 문학은 결코 조총련의 방침을 도해하

제10호, 1964. 9/ 「저항문학의 사상적 특성과 앞으로의 과제-남조선의 문학 작품을 읽고(그의 三)」, 『문학예술』 제11호, 1964. 12.

13) 윤학준, 「반항 문학에서 반미 구국의 문학으로-남조선 시인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문학예술』 제6호, 1963. 5.

14) 윤학준, 「남조선 평론의 새로운 경향-‘순수’ 시비 논쟁을 중심으로」, 『문학예술』 제13호, 1965. 5.

15) 김석범, 「평론 활동을 왕성히 할 데 대하여」, 『문학예술』 제9호, 1964. 7.

16) 량남인, 「최근에 발표된 소설들에 대하여」, 『문학예술』 제12호, 1965. 2.

거나 혹은 해설하는 책이 아니다. 물론 조총련의 방침이 현실 생활이 발전하는 합법칙성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작가가 그 방침을 작가로서 관찰한다는 것은 우선 그 방침에 의거해서 현실 생활을 관찰하고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그 방침이 인간들 속에서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생활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전형적 성격을 통해서 그 생활의 진실을 반영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조총련의 애국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 작가가 생활을 잘 알 때, 그는 많은 형상들에 둘러싸여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 형상들은 작가에게 권태와 안일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를 창작으로 추동할 것이다. 그 형상들은 작가의 붓이 자기들의 모습을 왜곡할 때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할 것이며, 따라서 도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작가는 높은 예술적 기교를 소유해야 한다. 작가의 사상과 그것에 의해서 인식되고 파악된 정책과 방침이 문제의 핵심에 파 들어가는 메스라면, 예술적 기교는 그것을 적출하는 집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량남인은, 이 글에서, 예술적 기교와 함께 특히 작가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이른바 주체문예이론으로 귀결된다. 우선 작가 자신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조직 생활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예술적 기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북한의 창작 성과에서 배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하며, 해방 후의 혁명투쟁과 한국 대중들의 애국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조총련의 문예 방침에 다름 아니라 하겠는데, 다음 인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문예 일꾼들 앞에 제기된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의 정치사상 수준을 높일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선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 문예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그를 뼈와 살로 하고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총련의 방침을 깊이 틀어잡는 문제이다.

그래야만 현실 속에서 새것과 낡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가려낼 수 있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며 진실하게 묘사하는 창작 태도와 입장을 확고히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수령님께서 문예 부문에 주신 교시를 깊이 연구 체득하여 창작 활동에서 관철하여야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거한 영예로운 문예 전사로 나갈 수 있다.

또한 높은 사상성에다 예술성을 안받침하기 위하여 예술 창조 기량을 높일 문제이다.¹⁷⁾

요컨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문예사상을 뼈와 살로 하고 아울러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조총련의 방침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현실 속에서 새것과 낡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술적 기교 이전에 사상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조총련의 문예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학렬¹⁸⁾ 또한 ‘사상성’과 ‘예술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사상성이란 시의 경우 정서적으로 파악된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시의 종자, 나아가 그것에 기초한 사회철학성을 말하며, 시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시인의 주장과 색다른 사색이 있어야 한다. 시는 사상정서 즉 서정성과 철학성, 그리고 생활적 진실성에서 새로운 맛이 나와야 하지만, 거기에다 미적 매력이 가미되어야 그것이 시로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시적 형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①표상(또는 심상)이 뚜렷해야 하며, ②참신하고 세련된 시어와 표현이 요구되며, ③운율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용은 그에 맞는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내용과 형식이 통일된 완성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량남인과 김학렬의 이러한 견해는 결국 1970년대에 접어들어 제기된 ‘종자론’¹⁹⁾과 관련되어 있다.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또한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 작품에는 반드시 작가가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깊이 있게 심어놓은 종자가 있어야 하며, 거기서 아름다운 형상의 꽃이 만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종자를 똑바로

17) 소영호, 「생활을 더 생동하게 그리자—지난해 <문학예술>에 발표된 산문들을 읽고」, 『문학예술』 제45호, 1973. 2.

18) 김학렬, 「생활의 진실성과 매력있는 시적 형상을 추구하자—최근 시작품을 읽고 느낀 창작상 문제」, 『문학예술』 제78호, 1984. 7.

19) 종자론에 대해서는 손화숙의 글 「공산주의적 교양과 긍정적 인물의 변모 양상」(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329-352쪽)을 참조.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김일성 교시와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조총련의 결정을 깊이 학습하여 현실에 대한 정책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²⁰⁾ 말하자면, 종자는 ‘김일성주의’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인 셈이다. 종자는 결국 김일성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을 요구한다. 요컨대, 작품에서의 철학적 깊이란 종자의 철학적 무게,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 사회적 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 있는 분석적인 세부 묘사와 언어 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 과정의 총체를 말한다.²¹⁾

우리의 모든 창작 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가르치심과 그에 의거한 총련의 방침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시문학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을 고유하고 추동하는 무기로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단순한 사랑을 위한 사랑의 노래, 무사상적인 시작품들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책이 전면에 들어난 직선적이며 서정이 없는 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은 서정성에 있다. 시가 정책을 반영한다고 하여 서술식 문장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구호의 나열이 되어서도 안 된다.

깊은 서정을 보장하면서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시가 시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모든 창작 활동은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동지’의 가르침과 그에 의거한 조총련의 방침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학렬은 종자론의 연장선에서 ‘주체사실주의’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주체문학론은 후계자 김정일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체문학론’이 제기되면서 내용에서는 수령·당·대중의 통일

20) 진길언, 「총련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예 작품을 많이 창작하자」, 『문학예술』 제55호, 1975. 5.

21) 김운호, 「시문학이 걸어온 영광의 30년—〈문학예술〉 100호 즈음하여」, 『문학예술』 제100호, 1991. 6.

22) 같은 글.

체에 관한 사상(3위1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문제,²³⁾ 그리고 형식에서도 새로운 내용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작방법과 창작태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문학 예술이 의거하고 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 경위에 있어서나 철학적 기초와 미학적 원칙에 있어서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방법이다. 우리 문학 예술이 의거하고 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주체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²⁴⁾

이른바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는 것인데, 여기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①자주성에 관한 문제 ②자주적 인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전형 창조 문제를 담는 것을 말한다. 자주적 인간의 최고 전형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즉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리고 주체 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민족적 형식이란 ①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 수단과 수법, 창작 기교를 구사하며, ②인민이 이해하기 쉽고 늘 쓰는 생활 언어를 문학어로 삼는 것 등을 말한다.

물론,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도 사람을 사회 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것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려야 한다는 요구를 전면에서 제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주체사실주의는 대중을 역사 발전의 주체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자연이 개조되고 사회가 발전하며

23) 이 시기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오창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문학평론 연구-수령형상 창조 붉은기사상강성대국건설을 중심으로」(『한국근대문학연구』, 월인, 2007년 상반기, 25~48쪽) 참조.

24) 김학렬, 「주체사실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문에 로작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 제105호, 1993. 3.

인류 역사가 전진한다는 진리를 깊이 있게 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요컨대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세계관에 기초하되, 자주성을 척도로 인간과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그리는 창작방법을 말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이 ‘계급성’을 전형화의 우선 척도로 내세우지만,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은 ‘자주성’을 전형화의 기본 척도로 삼아 민족과 인민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가 부유한 가정 출신의 사람이거나 지식인이라 하여도 애국자·혁명가로 훌륭히 형상화할 수 있게 된다. 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생활은 시대의 본질과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한 전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이 제기됨에 따라 조총련 비평 문단의 <카프> 채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주체사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카프>의 한계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카프> 작품에는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도 있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도 있지만, <카프>가 새로운 강령을 내놓은 뒤에 나온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에 속한다. 그러나 조명희·송영·이기영·한철야·박필양 등이 1927년 이후 발표한 작품은 대체로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지만, ‘항일혁명문학’은 아니다.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혁명적 문학 예술의 시원으로 되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으로 발생,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 예술은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이며 그 역사적 뿌리도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마련된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우리나라 혁명적 문학 예술의 시원으로 되는 조건에서는 <카프> 문학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경향을 인정한다고 하여 유산과 전통의 계선이 모호해지는 것도 아니며 혁명적 문학 예술 전통에 <카프> 문학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²⁵⁾

<카프>가 비록 역사상 가장 먼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²⁶⁾을 내놓았다고

25) 김학렬, 「주체사실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문에 로작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 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 제105호, 1993. 3.

26) 조명희의 「락동강」(『조선지광』 1927. 5)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과거 민족문학의 유산에 속한다. 따라서 그것은 혁명적 문예 전통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항일 혁명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항일혁명문학이 광복 후 주체사실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체사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조총련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이론적 거점으로 작용한다. 조총련의 입장에서 볼 때, 재일조선인 작가들이 ‘주체의 인간학’ 예컨대 ‘인간 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서의 문학의 성격을 고수하고, 그에 따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 창작은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재일조선인 사회는 이미 2, 3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계급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 상공업 종사자가 급증하고,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민족 고유의 말과 풍습 나아가 민족 자주 의식이나 민족 감정마저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점점 일본화 되어가는 것이 재일조선인 사회의 현실이다.²⁷⁾ 그러므로 조총련으로서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재일조선인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의 인간학’이 필요하고, 문학 또한 주체사실주의의 입장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총련 문학비평은 북한문학과 맥을 같이한다. 조총련이 결성된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문학비평의 주제는 명확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상투어, 이들에 대한 송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경, ‘주체 조선’의 해외공민이 된 재일조선인의 보람된 생활,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싸우는 한국 대중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 미국과 ‘그 앞잡이들’에 대한 비판과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 등이 그것이다.²⁸⁾ 1970년대 이후에는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흠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귀국에 대해, 1970년대에는 조국 방문에 대해 감사하는 작품들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7) 박종상,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 창작을 위하여」, 『문학예술』 제88호, 1987. 9.

28) 정화흠, 「내 고향-김윤호 시집에 대하여」, 『문학예술』 제92호, 1989. 3.

4. 이중 언어의 질곡, 조선어에 대한 인식

조총련 문학비평은 ‘조선어’ 창작과 민족어 교육을 강조하는데, 김학렬·림경상 등이 특히 그러하다. 김학렬은 일본어가 아니라 민족어(조선어)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문학 예술의 민족적 형식을 고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족어는 주체사실주의 고수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남의 나라 말로 남의 나라 문학을 창작한다면, 이는 일본말 반 조선말 반의 기형적인 ‘혼혈어’ 문학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말하자면 조총련 비평은 북한의 문예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주체사실주의에서 강조하는바 민족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림경상은 그의 글²⁹⁾에서, 김시중·박춘일·김달수 등의 작가들은 재일조선인의 의식과 생활 감정을 조선 민족의 그것과는 이질적인 것처럼 단정, 재일조선인이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 느끼는 자각과 영예감을 고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적 긍지를 무너뜨리고, 일제가 강요한 식민지적 노예 근성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작가는 우리말과 글보다는 오히려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온 혁명적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북한의 창작 성과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일본의 부르주아 문학의 조류에 심취해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전형적 상황에서의 전형적 인물’을 그릴 것과 ‘혁명적 낭만성’을 살릴 것을 요구한다.

조총련 비평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민족어로의 문학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다음은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낸다.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썼다고 별을 받는 세상, 허지만 나라 없는 백성이기에 이 억울한 사정을 어데다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으며 정애하는 수령의 아버지 손길이 있어 수만리 이국땅에 있으면서도 공화국 공민이라

29) 림경상, 「창작 운동의 새로운 양상」, 『문학예술』 제1호, 1960. 1.

는 자각과 긍지를 안고 떳떳하게 살고 있다.

천대와 멸시 속에 배우지 못한 원한이 사무친 동포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기와장한 개 얻지 않고 자력으로 수많은 우리 학교들을 지었으며 자주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들의 민족교육을 <반일교육>이니 <일본의 국가리익에 해롭다>느니 별별 생트집을 잡아 탄압을 하려고 설치고 있다.³⁰⁾

재일조선인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민족학교를 세워 교육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반일 교육’으로 몰아 억압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말이 있어도 마음껏 가르치고 배울 수 없는 ‘재일(在日)’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감계이기도 하다. 민족어 교육을 억압하는 외적 상황뿐 아니라,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에서도 굳이 ‘조선어’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일본을 내면화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다음은 일본어가 재일조선인에게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적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어 우리 여성들의 정조를 짓밟고 안하무인격으로 서울이나 부산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일본 관광객 무리들의 뒤꽂무니에 따라다니면서 일본 이름으로 찍힌 사장이란 명함을 뿌리고 온갖 수치스러운 추태를 부리는 일부 재일동포들의 몰상식한 행실에 대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증오와 멸시가 가득찬 눈총을 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대답대신 버럭 화를 내기만 한다.³¹⁾

일본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 그러나 그는 ‘조선어’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구사한다. 서로 단결하고 투쟁하기 위해 민족학교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지만,³²⁾ 갈수록 여의치 않다. 다음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30) 리은직, 「광주 시민들의 만세소리」, 『문학예술』 제56호, 1974. 12.

31) 리은직, 「남조선 고향땅을 생각하면서」, 『문학예술』 제66호, 1978.

32) 손지원, 「잊지 못할 화술 강습」, 『문학예술』 제108호, 1998. 12.

내가 거주하는 지부도 인제는 전임위원장 한 사람 제외하면 다 조선말을 잘 못한다. 아니 잘 못하는지, 할 줄은 아는데 안 쓰는 것인지 망탕 일본말로만 얘기한다.

모두 비전임 상임들인데 그중에는 통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하기야 민족운동의 무기이고 길잡이인 『조선신보』도 일본글 판이고 절반으로 줄어든 조선말판에는 되지도 않는 말 -이거야 일본말을 조선글로 옮겨 놓았을 뿐이 아닌가 생각되리만치 한심한 조선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지경이니까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귀화자가 이미 수십만에 이른데다가 해마다 1만 명가량씩이나 늘어나고 있다는 니, 젊은 남녀의 70%가 일본인과 결혼하고 있다는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면 그전에는 설마 하고 의문시하였었는데 요즈음은 몸소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³³⁾

위의 인용은 어떤 조총련 지부의 상황을 담담하게 내보인다. 전임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일본어로 말한다는 것, 비전임 상임들 가운데는 조선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 민족운동의 무기이자 길잡이 역할을 한 『조선신보』도 조선말판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조선말조차 일본말을 조선말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말뿐이라는 것, 그리고 갈수록 귀화자가 늘어나고 있고 일본인과 결혼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습관적으로 “모시모시” 하는 할아버지에게 뜻밖에도 손자는 “할아버지입니까?” 하고 ‘조선어’로 말하더라는 조손(祖孫)간의 전화 통화를 소개, 민족어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일본어밖에 모르던 응석반이 손자가 민족학교에 다닌 지 석 달이 지나자 ‘조선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하다. “민족의 얼은 죽지 않고 엄연히 살아 있다.”는 것이며, 일본의 동화정책에 맞서 우선 민족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³⁴⁾

제일조선인 사회는 세대가 교체되면서 ‘조선어’를 모르는 2, 3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일본어로 창작하면 일본 출판사에서라도 출판할 수

33) 금호강, 「바둑집에서」, 『겨레문학』 제6호, 2001. 9.

34) 조선어의 장애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어와 조선어의 긴장 관계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이카이노 어’ 그리고 그것의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유숙자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유숙자, 「오사카 이카이노의 제일 한국인 문학」, 김현택(외), 『제외한인작가연구』,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1, 306~310쪽)

있고 일본 서점에도 보급할 수 있다는 여론도 점증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어로만 문학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재일조선인은 조선어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민족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선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어 작품 창작에 애로가 많으므로, 조선 민족의 독특한 성구나 속담들을 연구하고 민족적 표현 형식을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³⁵⁾은 저간의 사정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재일조선인 사회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조총련 문단의 작품 창작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³⁶⁾

5. 결어, 조총련 문학비평의 민족문학적 위치

조총련 문학비평은 우선 북한의 문예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사상은 이들 비평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조국을 위대한 수령으로 파악하고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바로 조국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김일성 교시가 조총련 비평의 방향을 결정한다.

‘문예동’은 조총련 문학, 즉 그들이 말하는 ‘재일조선문학’을 “조선문학의 한 부분을 이루는” 문학으로, “조선어를 형상 창조의 기본 수단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기본묘사 대상으로 하는 민족문학”³⁷⁾이라고 규정한다. ‘재일조선문학’은 북한문학의 한 부분이요 민족문학이라는 것인데, 이른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입각한 주체사실주의야말로 재일조선인 문학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이상인 셈이다. 그러나 사상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그것을 형상화하는 수단인 언어 문제는

35) 박관범(외), 「우리 소설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 『문학예술』 제93호, 1989. 6.

36) 박종상, 「일본에서의 조선문학에 대하여—조선 관계 전문 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 문학 분과에서 한 토론」, 『문학예술』 제90호, 1988. 9.

37) 문예동, 「창작에서 주체를 세우고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자」, 『문학예술』 제84호, 1986.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일조선인 사회는 세대가 교체되면서 조선어를 모르는 2, 3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조선어로만 창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조총련 비평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균열을 보여주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문학신문』(1959.3.12)에 게재된 「문학의 민족적 특성과 생활 반영의 진실성」³⁸⁾을 그들의 기관지 「문학예술」에 전재한 일은 그 좋은 예이다. 이 글에 따르면, 언어는 문학 작품의 민족적 특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며, 서로 다른 민족이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이들은 각각 자기들의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있다. 외국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민족문학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작품들에서 창조된 인간들의 성격,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의 민족적 특성, 이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서 표현되는 그 민족 고유의 공통성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뀌 말하여, 조총련 비평은 북한에서 발표된 글을 빌어 조선어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자신들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인데, 이는 이미 1960년대에 조총련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민족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언어는 문학 작품의 민족적 특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조총련 작가들이 누구보다 조선어의 위기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 하겠다. 민족문학에 있어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금석과도 같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주제어 : 재일조선인, 경계인, 주체사실주의, 조선어, 민족정체성

38) 김하명, 「문학의 민족적 특성과 생활 반영의 진실성」, 『문학예술』 제1호, 1960. 1. (『문학신문』 1959년 3월 12일호에서 전재)

<참고 문헌>

- 권은주, 북한의 재일조선인 귀국 운동에 관한 연구-추진 목적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6
- 금호강, 「바둑집에서」, 『겨레문학』 제6호, 2001. 9.
- 김석범, 「평론 활동을 왕성히 할 데 대하여」, 『문학예술』 제9호, 1964. 7.
- 김윤희, 「시문학이 걸어온 영광의 30년—〈문학예술〉 100호 즈음하여」, 『문학예술』 제100호, 1991. 6
- 김태경, 「바람란리 물란리」, 『문학예술』 제1호, 1960. 1.
- 김하명, 「문학의 민족적 특성과 생활 반영의 진실성」, 『문학예술』 제1호, 1960. 1.
- 김학렬, 「생활의 진실성과 매력있는 시적 형상을 추구하자—최근 시작품을 읽고 느낀 창작상 문제」, 『문학예술』 제78호, 1984. 7.
- _____, 「주체사실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문예 로작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 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 제105호, 1993. 3.
- 김현택(외), 『재외한인작가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 량남인, 「최근에 발표된 소설들에 대하여」, 『문학예술』 제12호, 1965. 2.
- 리광현, 「후레이들」, 『문학예술』 제70호, 1980. 3.
- 리방세, 「고향 땅을 찾은 어머니의 낯—시 ‘눈약’에 대하여」, 문예동 대판 지부, 『불새』 vol. 14.
- 리은직, 「분격을 투쟁어로—최근의 남조선 문학 작품을 읽고」, 『문학예술』 제4호, 1962. 10.
- _____, 「광주 시민들의 만세소리」, 『문학예술』 제56호, 1974. 12.
- _____, 「남조선 고향땅을 생각하면서」, 『문학예술』 제66호, 1978.
- 림경상, 「작 운동의 새로운 양양」, 『문학예술』 제1호, 1960. 1.
- 문예동, 「창작에서 주체를 세우고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자」, 『문학예술』 제84호, 1986. 7.

- 박관범(외), 「우리 소설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 『문학예술』 제93호, 1989. 6.
- 박종상, 「일본에서의 조선문학에 대하여—조선 관계 전문 학자들의 국제과학도론회 문학 분과에서 한 토론」, 『문학예술』 제90호, 1988. 9.
- _____,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 창작을 위하여」, 『문학예술』 제88호, 1987. 9.
- 소영호, 「생활을 더 생동하게 그리자—지난해 <문학예술>에 발표된 산문들을 읽고」, 『문학예술』 제45호, 1973. 2.
- 손지원, 「잊지 못할 화술 강습」, 『문학예술』 제108호, 1998. 12.
- _____, 「조국을 노래한 제일조선시문학 연구(1)」, 『겨레문학』 제3호, 2000. 12.
- 오창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문학평론 연구—수령형상 창조불은기 사상강성대 국건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월인, 2007.
- 원정희, 「대덕산을 찾아서(방문기)」, 『풍량을 헤치며—총련 결성 45돐 기념문학작품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6. 10.
- 윤학준, 「반항 문학에서 반미 구국의 문학으로—남조선 시인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문학예술』 제6호, 1963. 5.
- _____, 「저항문학의 자세와 수법—남조선의 작품을 읽고 (그의 二)」, 『문학예술』 제10호, 1964. 9.
- _____, 「저항문학의 사상적 특성과 앞으로의 과제—남조선의 문학 작품을 읽고(그의 三)」, 『문학예술』 제11호, 1964. 12.
- _____, 「남조선 평론의 새로운 경향—'순수' 시비 논쟁을 중심으로」, 『문학예술』 제13호, 1965. 5.
-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19호, 2001. 12.
- 정화흠, 「내 고향—김운호 시집에 대하여」, 『문학예술』 제92호, 1989. 3.
- 정호수, 「제일조선인에 의한 문학 활동에 대하여(1)」, 『문학예술』 제65호, 1977. 12.
- 진길언, 「총련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예 작품을 많이 창작하자」, 『문학예술』 제55호, 1975. 5.
- 최동호(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 허준, 「저류를 형성하는 것—남조선의 작품을 읽고(그의 一)」, 『문학예술』 제8호, 1964. 5.

<Abstract>

The Meaning of National Literature in Japanese-Korean Literary Criticism

Lee Sanggab

'Jo-Chong-Ryun'(조총련) literary criticism follows primarily the literary policy of North Korea. The idea that 'native country is a great Suryung(수령), Suryung is the very native country.' is the basis to 'Jo-Chong-Ryeon' literary criticism, and the teaching of Kim, Il-Sung(김일성) determines the orientation of 'Jo-Chong-Ryun'(조총련) literary criticism.

Japanese-korean literary criticism is a part of Korean literature, and that is the very national literature which uses korean language and formulates man as the subject to the history. So-called the 'subject realism'(주체사실주의) that is based on the subject idea of Kim-Il-Sung is the only idea that Japanese-korean literature must pursue. But as a tool, the language is not the element that determines the national identity in national literature. At this point, 'Jo-Chong-Ryun' writers reveal strongly the crisis of a korean language. Finally, language is a touchstone that certifies the national identity in a national literature.

【Key words】 : Japanese-Korean, marginal man, subject realism, Korean Language, national identity

이상갑

한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135-950)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30-33 대림아파트 101동 604호

전자우편: leesg@hallym.ac.kr

이 논문은 2009년 2월 18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3월 12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